

과속 사고 순식간에 대형참사 규정속도 꼭 지키는 습관 중요

나부터 안전운전



⑦ 과속은 절대 금물

광주시 북구에 사는 이현식(42)씨는 지난 6월 2일 부산 해운대에 다녀오던 중 시속 130km로 달리던 한 승용차가 급히 차선을 바꿔 끼어드는 바람에 이를 피하기 위해 고속도로 옆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차량이 크게 파손됐다. 이후 이날 이씨는 열 차선의 차량이 과속을 하면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했다. 이씨는 "출·퇴근길 차선이 넓은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마치 자동차 경주장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든다"며 과속을 일삼는 운전자들의 행태를 꼬집었다.

광주시 남구에 사는 김경식(38)씨는 지난 3일 빛고을로에서 큰 사고를 당할 뻔 했다. 규정속도는 시속 90km. 김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75km로 달리던 중 갑자기 앞서가던 화물차가 멈춰 섰다.

깜짝 놀란 김씨는 급정거를 하면서 가까스로 멈춰 섰다. 앞차와의 거리는 불과 50cm 정도였다. 김씨는 "과속했다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라며 "저속 주행한다고 주변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고 욕설을 하는 운전자들이 있는데, 조금만 천천히 운전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속이 대형 교통사고를 불러 일으키는 주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과속은 안전거리 미확보·핸들 과대조작 등을 유발하며 졸음운전을 일으킬 수도 있다. 앞차의 주행 흐름에 맞춰 운행하되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4일 광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모두 8849건(사망자 120명, 부상자 1만4523명)이다. 이중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모두 11건으로 사망 5명, 부상 26명이다.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대부분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과속은 대형참사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올바른 운전 습관이 요구된다.

교통사고의 경우 순식간에 일어나는 만큼 과속 주행 습관을 자제하고 규정 속도 준수 등 준법 및 안전운행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후원 손해보험협회

광주 선진교통문화 범시민운동본부·광주일보 공동캠페인

광주 일제고사 치르기로

‘획일적 평가’ 거부하던 방침 선회, 12일 실시

진보 교육단체 반발...전남은 원래대로 실시

광주시교육청이 진보 교육단체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오는 12일로 예정된 일제고사(2011년 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르기로 했다. 광주와 마찬가지로 진보교육감 체제인 전북교육청은 평가를 거부했다.

학력점점의 필요성을 인정해 꾸준히 평가를 치르고 있는 전남교육청은 이번 시험도 본다.

4일 광주·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초, 중, 고2 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12일 '2011년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한다. 이 평가는 초·중·고 교육법에 교과부 장관이 시행토록 규정된 것으로, 매년 채점 결과를 토대로 지역·학교별 성취도 등이 공개된다.

진보 교육감과 교육단체 등은 이번 시험과 진단평가, 연합학력평가를 아울러 '일제고사'로 분류, 평가거부나

추속을 촉구했다. 학생들을 '잘 세우기 경쟁'으로 내몰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전교조 출신 교육감 체제인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시험은 치르기로 했다.

시 교육청은 "법적인 평가권한을 교과부 장관이 갖고 있는 시험을 치르지 않는 것은 실정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는 일제평가를 거부해온 시교육청의 기존 방침과 다르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진단평가를 치르지 않았고, 전국연합학력평가 횡수를 줄인 맥락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

시 교육청의 평가실시 방침에 대해 진보 교육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할 전망이다.

광주 교육·시민단체 등으로 구성

된 광주희망네트워크는 최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제고사 폐지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한 줄 세우기를 강요하는 일제고사 폐지를 강력 요구한다"며 "교과부 지침을 그대로 수용한 시교육청의 대응 방침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제고사 폐지를 위해 릴레이 1인 시위와 촛불문화제, 일제고사 거부 체결학습 등을 실시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시교육청의 일제고사 동참 발표에 대해 이렇다할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이번 평가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고 '일선 학교에 대해 체포프로그램을 마련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육청도 대체프로그램 마련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냉각탑 시료 채취

광주시 북구 보건소 직원들이 4일 용봉동 청사 별관 옥상 냉각탑에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레지오넬라균 검출 여부 확인을 위해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23분
해질 19시 51분

달돋이 09시 22분
달질 22시 19분

후텁지근	후텁지근	후텁지근	후텁지근
광주	구름점차맑아짐	21/30°C	21/27°C
목포	구름점차맑아짐	19/27°C	19/27°C
여수	구름점차맑아짐	21/28°C	20/31°C
나주	구름점차맑아짐	20/31°C	20/29°C
완도	구름점차맑아짐	20/29°C	19/32°C
구례	구름점차맑아짐	19/32°C	20/30°C
강진	구름점차맑아짐	20/30°C	19/29°C
해남	구름점차맑아짐	19/29°C	19/30°C
장흥	구름점차맑아짐	19/30°C	20/32°C
순천	구름점차맑아짐	20/32°C	20/29°C
영광	구름점차맑아짐	20/29°C	19/29°C
진도	구름점차맑아짐	19/29°C	18/31°C
전주	구름조금	18/31°C	19/28°C
군산	구름조금	19/28°C	17/31°C
남원	구름조금	17/31°C	19/24°C
옥산도	구름점차맑아짐	19/24°C	

〈오전〉 바다	중랑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1.0m	☀️	🍷	😓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1.5m	☀️	🍷	😓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1.5m	☀️	🍷	😓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1.0~2.0m	☀️	🍷	😓

〈오후〉 바다	중랑	파고	미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1.0m	목욕	04:57 10:08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1.5m	목욕	17:07 22:15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1.0m	여수	11:42 05:31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1.5m	여수	--:-- 17:44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6(수)	7(목)	8(금)	9(토)	10(일)	11(월)
날씨	☁️	☁️	☁️	☁️	☁️	☁️
최저/최고	21/26	22/26	22/28	22/28	22/29	22/29

여름철 레지오넬라균 '주의'

광주 대형건물 10곳 중 1개꼴 검출

광주지역 대형건물 10곳 가운데 1곳꼴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4일 "지난 2개월간 종합병원, 요양원, 대형목욕탕, 백화점 등에 설치된 냉각탑과 배관에 대해 레지오넬라균 검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두 177곳 중 14곳(8%)에서 검출됐다"고 밝혔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해당 건물에 대해 관할 보건소를 통해 살균소독과 세정 등을 권고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했다. 폐렴 등의 원인이 되는 레지오넬라균은 에어컨 사용이 늘어

나서 여름철에 냉각탑 등에서 증식할 가능성이 높아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9월까지 대형건물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레지오넬라균은 냉각탑, 에어컨 등에서 분사된 물방울이나 먼지를 통해 호흡기로 전파되므로 특히 면역력이 약한 만성질환자, 노약자 등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며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레지오넬라균 뿐 아니라 모든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이다"고 밝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

아파트에 인센티브 제공

광주시 동구(청장 유태평)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이 우수한 아파트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동구는 지역내 50세대 이상 아파트 51개소를 대상으로 작년 동월대비 음식물쓰레기 감량률과 주민참여도를 점수로 환산해 감량우수 아파트에 대해서는 최고 100%까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감면해 준다고 4일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아파트는 오는 15일까지 방문이나 우편, FAX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2-608-2452

양승훈기자 yang@kwangju.co.kr

압수·수색요건 더 까다로워진다

내년부터...출국금지 기간 1개월 이내로

수사 기관의 압수·수색 요건이 내년부터 더 까다로워진다. 경찰청은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내년 1월1일 발효되는 형사소송법은 기존에 '필요성'이라고 설정했던 다소 추상적인 압수·수색 요건에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추가했다.

역시 지난 30일에 통과된 출입국관리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출국금지

기간을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로 설정하고 소재 불명 및 도주 등 사유가 있을 때에만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체포사유 등 특별한 요건이 있을 때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새로 만들었다. 이 경우 6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을 하면 된다. 출입국관리법은 이달 하순께 공포 예정이며 관련 조항은 공포 6개월 후부터 발효된다.

연합뉴스

초중고 국어시간 '책읽는 재미' 술술

독서체험활동 강화

초중고 국어수업시간에 독서활동이 강화되고 각종 독서체험 프로그램이 확대된다.

독서 기록이 대학입시와 연결돼

'독서는 억지로 해야하는 재미없는 것'으로 인식되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독서교육종합시스템과 에듀넷의 연계도 분리된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4일 오전 양천구 복원초등학교를 방문,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학교 독서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독서활성화 방안은 국어교과의 '읽기' 영역을 실제 책을 읽고·쓰고·말하고, 토론하는 실천 중심의 독서활동으로 운영하고, 다른 교과에서도 독서와 연계한 주제 탐구학습을 늘리도록 했다.

연합뉴스

www.oknwood.com

日本産 히노끼(편백나무)로 만든 가구

편백나무는 자연이 주는 최고의 선물

편백나무는 무병장수의 나무입니다.

- 탁월한 피톤치드 효과
- 아토피 치유 효과
- 비염·천식 치유 효과
- 쾌적한 산림욕 효과
- 집중력과 기억력 증가
- 해충 방지 효과
- 소취 및 유해물질 중화
- 면역기능 증대 자연치유 효과

편백나무 인테리어 상담 및 편백제품 제작 전국·전남북·시·군 대리점 모집 판매 및 창업문의 010-3609-4321

편백나무가구 전문업체 광남종합목재건축재상사주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634-26
tel.062)652-2935 · 2223 fax.062)651-5141

· 협력사 | 우단퍼피퍼블링 | 태원목재 | 호남총판 | KCC서고보드 | 라피즈 서고보드 | KCC강화마루 | 동화마루 대리점 | 레토피아 | 함성목재 | 호남총판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 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덩펍견적은 받지 않습니다.

무료견적 시공상담 유사들,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www.chilman.co.kr

광주 (062)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전남 (061)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본사 : (02) 454-7722